

# 肉類價格政策의 實踐的 方案

鄭 燦 吉\*

- I. 序 言
- II. 肉類價格構造의 現況과 問題點
  - 1. 肉類價格形成 및 決定要因
  - 2. 肉類價格構造 및 動向
  - 3. 肉類價格과 肉類生産
  - 4. 肉類價格과 肉類消費
- III. 肉類價格政策의 實踐方案
  - 1. 肉類價格政策의 目標
  - 2. 肉類價格政策으로서 備蓄事業
  - 3. 肉類의 適正價格과 支持價格
- IV. 結 論

## I. 序 言

國民經濟의 急速한 成長으로 農產物에 對한 消費構造는 多樣化·高級化되고 있으며 특히 所得彈力度가 높은 畜產物에 對한 需要가 急伸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畜產物需要의 增大에 對한 彈力的인 生産이 이루어지지 않아 畜產物價格의 上昇壓迫이 深化되어 그 價格安定을 爲해 統制價格制度가 適用되어 왔다. 특히 牛肉과 豚肉의 境遇에는 最高價格을 定해 놓고 그 以上의 價格上昇을 抑制하는 低肉類價格政策과 더불어 供給調節政策을 同時에 병행하여 實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높은 支持價格은 市場價格을 上昇케 하고 높은 市場價格은 一般物價의

主度的 役割을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現實化되지 못한 肉類價格政策의 實施는 物價安定에 對한 短期的인 效果를 취한다 할지라도 長期的으로 볼 때 肉類生産增大에 逆效果를 招來할 뿐만 아니라 消費偏重을 惹起시키고 있다. 또한 代替畜產物의 消費移轉으로 말미암아 不均衡成長을 造成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肉類의 輸入이 不可避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繼續된다면 우리나라는 永遠한 肉類輸入國으로 轉落하게 될 것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肉類의 安定的인 供給과 消費를 한 次元 높은 水準으로 이끌어 갈 肉類價格政策이 講究되어야 할 이 때에 肉類價格構造의 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고 이의 解決과 關連하여 앞으로 遂行되어야 할 効率的인 肉類價格政策의 實踐的인 方案을 우리나라 畜產保護의 觀點에서 摸索하여 보기로 한다.

## II. 肉類價格構造의 現況과 問題點

### 1. 肉類價格形成 및 決定要因

肉類는 現在 農畜產物去來에서 穀物 다음으로

\*建國大 畜產大 教授, 農業經濟學博士.

重要な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最近 數年 동안 繼續 上昇趨勢를 보여 農家所得增大에 貢獻을 하였다. 이러한 肉類價格은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 一般商品價格과 다를 바 없이 需要供給의 原則에 의해서 決定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肉類價格은 그 形成過程에서 몇 가지 特殊性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는 肉類價格은 統制價格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流通過程에 개재하는 中間商人의 數가 過多하고, 셋째는 價格이 不安定하며, 끝으로 季節變動이 몹시 큰 것으로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特徵 가운데 특히 問題視되어 있는 것은 生牛나 生豚은 그 價格形成이 產地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에 의한 競爭狀態에서 이루어지는 反面에 牛肉 및 豚肉의 境遇에는 政府에 의해서 協定價格이라는 最高價格制度에 의하여 價格이 形成되는 二重性을 띄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또한 肉類價格決定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을 考察하여 보면 需要의 側面에서 長期的으로 人口成長, 實質所得水準, 嗜好度에 의존하며 短期的으로는 肉類의 價格水準과 代替畜産物의 價格水準이 主要한 變動要因이 되고 있다. 그리고 供給의 則面에서는 國內生産量과 輸入量을 들 수 있다. 또한 肉類의 生産者와 消費者를 連結하는 流通過程에서 發生하는 費用 역시 價格決定의 主要要因을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政府나 公共機關이 儲蓄事業을 통하여 市場介入을 함으로써 價格形成에 일부 影響을 미치고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 肉類價格形成 및 決定要因에 影響을 받아서 이루어진 우리나라 肉類價格構造와 動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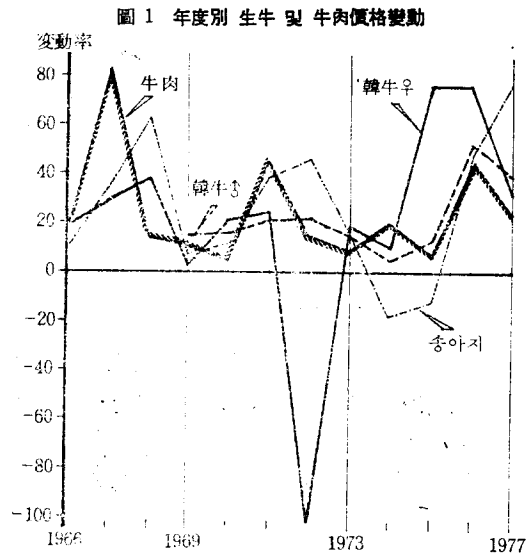
## 2. 肉類價格構造 및 動向

우리나라 牛肉供給과 營農使役의 대부분을 담

당하고 있는 生牛의 農家販賣價格과 牛肉의 消費者支拂價格을 보면 生牛(350kg)의 價格은 1965년에 頭當 38,086원에서 1977年度에는 438,100원으로 높은 上昇을 보였다. 1975年을 指數年度로 할 때 同一期間에 指數는 19에서 215로 急伸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年平均 成長率도 23.4%나 되는 높은 水準을 나타냈다. 송아지의 境遇에는 生牛보다 높은 價格不安定現象을 나타내고 있는데 同一期間에 頭當價格이 8,084원에 不過하던 것이 145,300원으로 增加하였으며 그 指數는 15에서 269로 增加하여 年平均 成長率은 30.3%로 生牛의 境遇보다 높게 나타났다. 牛肉은 600g에 대한 消費者支拂價格은 144원에서 1,655원으로 그 指數는 13에서 186으로 높은 上昇을 나타내었으며 年平均 成長率도 生牛의 境遇와 거의 같은 23.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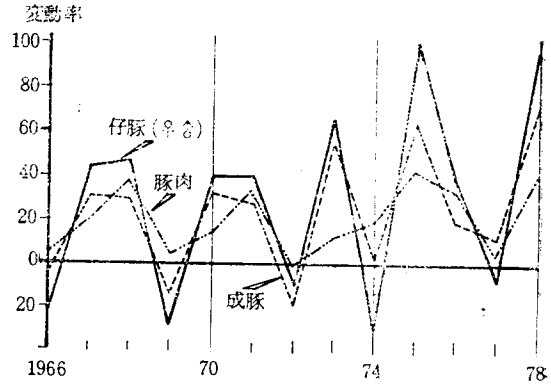
以上에서 지난 13年間に 걸친 牛肉과 生牛의 價格動向을 고찰하였는데 350kg 生牛價格은 1971年以後 1974年 上半期까지 繼續 上昇勢를 보였으며 1974年 下半期에는 一時的 下落現象을 나타내다가 1975년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上昇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높은 價格變動幅은 그 價格의 不安定要素를 항상 배제할 수 없음을 立證하고 있다. 송아지의 境遇에도 1973年度까지는 繼續 增加現象을 보였으나 1974年度부터 다시 下落하여 1975년에는 1971年の 價格水準으로 暴落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부터 다시 急上昇하는 奇現象과 더불어 1974年과 1975年の 境遇에는 生牛와 송아지의 變動的인 價格趨勢와는 달리 繼續 上昇勢만 보이고 있어 政府에 의하여 消費者價格이 統制되고 있기는 하지만 肉類價格 上昇壓迫에 의하여 每年 牛肉價格은 꾸준히 上昇하였다. 그리하여 競爭價格에 의하여 形成되고 있는 生牛 및 송아지價格과 政府協定價格에

의하여 具現되는 牛肉의 消費者價格間에는 安定的인 面에서 相反된 모순이 내포되어 있음이 <圖 1>에 의해서 잘 說明되고 있다.



生牛와 牛肉 다음으로 重要한 比重을 占有하고 있는 生豚과 豚肉의 年度別 價格을 살펴보면 1965年度에 生豚 頭當(80kg) 8,237원 하던 것이 1977年度에는 54,300원으로 6.6배나 올랐으며 年平均 增加率は 19.6%나 되었다. 새끼 돼지의 境遇에는 同一期間에 頭當 2,591원에서 15,100원으로 4.8배나 上昇하였으며 年平均 增加率は 生豚보다 높은 21.8%로 多少 높았다. 豚肉 600g當 價格은 同一期間에 114원으로부터 822원으로 4.7배나 上昇하였으며 年平均 增加率は 18.8%나 되었다. 生豚과 豚肉의 年度別 價格變動은 週期的인 變動이 반복되는 特徵이 현저함인 <圖 2>에 잘 나타나 있다. 大體的으로 生豚 및 豚肉은 2~3年을 週기로 심한 기복을 보이며 騰落하고 있다. 成豚, 仔豚, 豚肉價格이 全般的으로 1966年, 1972年, 1974年, 1977年度에는 各各 下落現象을 나타냈고 그 외의 年度에는 增加現象을 보였다. 變動幅은 成豚, 仔豚,

圖 2 年度別 生豚 및 豚肉價格變動



豚肉價格順으로 높았고 특히 1974年 下半年期부터 對日肉類輸出이 擴大됨에 따라 價格變動이 심해졌던 것으로 思慮된다.

鷄肉 역시도 價格變動週期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변동추세를 보이지 않고 不規則的인 現象을 보이고 있다. 生鷄(2kg)의 境遇 1965年에 293원 하던 것이 1977년에는 1,290원으로 높은 價格上昇을 보였다. 價格指數 또한 同一期間에 30에서 133으로 나타났으며 年平均 價格增加率は 13.7%로 比較的 낮은 上昇率을 나타내고 있음을 <圖 3>에서 볼 수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 肉類價格을 他國과 比較해보면 1973年과 1974年末을 基準으로 <表 1>에서 살펴 보면 매우 低廉한 것을 알 수 있다. 畜産 基盤條件이 우리나라와 類似한 日本에 비하면

圖 3 年度別 生鷄 및 鷄卵價格變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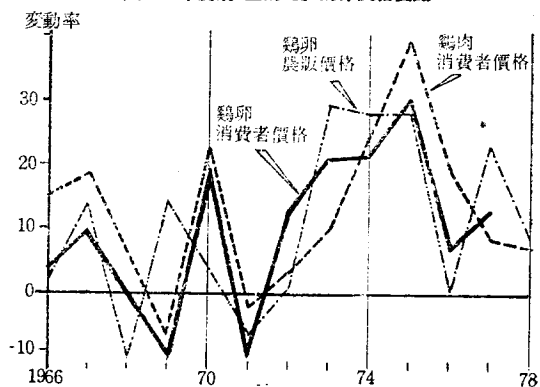


表 1 世界 主要國家의 肉類價格比較  
(單位: kg當/원)

主要國家	牛 肉	豚 肉	鷄 肉
韓 國(74末)	1,315	717	412
日 本( # )	3,306	1,777	1,293
美 國( # )	1,396	989	475
프 랑 스(73末)	1,455	1,838	888
英 國( # )	1,267	1,022	609
이 탈 리 아( # )	2,026	1,666	1,118
호 주( # )	1,022	1,675	1,469
덴 마 크( # )	1,709	1,666	969

資料: 農協 營農指導 핸드북, 1976

牛肉과 豚肉의 價格은 40% 水準에 不過하며 鷄肉은 30% 水準에 달했다. 畜産이 農業의 基本으로써 高度로 發達하였을 뿐만 아니라 飼料資源이 풍부한 先進國에 比하여도 우리나라 肉類價格은 낮은 水準에 있다. 또한 1978.9 現在 美國 農務省이 調查한 世界 主要首都의 牛肉 1kg當 散賣價格을 보면 본 6,430원, 브라질리아 1,055원, 브뤼셀 5,705원, 부에노스아이레스 825원, 켄베라 2,995원, 코펜하겐 8,795원, 런던 4,970원, 멕시코시티 1,530원, 워싱턴 2,820원, 東京 18,325원, 서울이 약 3,84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도 우리의 牛肉價格은 東京에 比해서 21%에 不過한 低廉한 상태였다.

이러한 事實은 物價當局이 物價安定策의 一環으로 肉類消費價格에 대하여 協定價格인 最高價格制度로서 價格上昇抑制에 置重한 結果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肉類生産의 鈍化와 消費需要의 膨大는 肉類波動까지 惹起시켜 牛肉의 大量輸入이 繼續되고 있다.

### 3. 肉類價格과 肉類生産

肉類生産은 다른 2, 3次産業生産에 比하여 長期的 내지 有機的 生産이고 自然條件에 크게 制約받고 있으므로 價格에 대하여 供給이 非彈力的이다. 한편 需要에 있어서도 다른 産業의 生産品보다 價格彈力性이 낮은 現象을 보이고 있

다. 그러므로 價格이 需要供給의 原理를 통하여 生産要素를 가장 合理的으로 配分하는 機能을 가졌음에도 不拘하고 肉類價格은 그 循環的 變動面에서 資源配分の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工業生産의 境遇 景氣循環過程에서 不況時에는 生産을 빨리 減縮하지만 畜産業에 있어서는 이런 原則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한 肉類에 대한 需要는 대체로 年間을 통하여 平準化되어 있다.

肉類價格變動은 以上과 같은 生産, 需要上의 特殊性으로 인하여 일어나며 그 不安定性은 生産技術과 氣候條件에 따라 供給則에 그 原因이 있는데 需要構造의 變化에 即刻的으로 對應할 수 있는 供給의 非伸縮性에 基因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牛肉의 境遇에 物資의 需給이 生産의 強力한 뒷받침이 없어 不均衡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消費者價格 역시 統制價格으로 最高價格에 묶여 있어서 自由競爭價格의 性格을 띠고 있지 못하므로 牛肉의 價格과 그 生産과의 關係를 連關시킬 수는 없으나, 生産과 價格變動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消費者價格指數는 1965年을 基準으로 100에서 1977年度에는 1,149로 매우 높은 上昇을 보였으며 특히 牛肉價格은 統制價格임에도 不拘하고 自然的 上昇壓迫으로 인하여 年次的으로 繼續 上昇한 반면 그 生産量指數는 1965年을 基準으로 1977년에는 305로 上昇하여 實際 消費者價格의 上昇幅은 牛肉生産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意味하고 있다. 年度別로 살펴 보면 1968年度에는 前年對比 牛肉價格이 63.6%나 增加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後年인 1969년에는 牛肉生産이 오히려 前年對比 7.47%나 減少하는 극심한 供給非彈力性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1976年度에는 價格上昇率이 前年對比 42.8%나 밑에도 不拘하고 當該年度에는 牛肉生産이 前年對比 8.6%에 지나지 않았으며 次年度에는 8.9%에 不過하여 이제까지의 牛肉의 價格上昇推移는 牛肉生産增大에 커다란 貢獻을 하지 못하고 있다.

豚肉의 境遇에도 牛肉과 마찬가지로 消費者價格이 統制를 받고 있다.

豚肉價格과 生産量과의 關係를 보면 豚肉의 消費者價格은 1965年을 基準으로 1977年度에는 721로 높은 增加를 보인 반면 豚肉生産指數는 218로 豚肉價格指數를 현저하게 밀도는 水準이었다.

또한 豚肉의 消費者價格과 生産量과의 關係는 매우 不規則인 現象을 보이고 있다. 1967年度에는 豚肉의 消費者價格이 前年對比 22.2%나 上昇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生産量은 오히려 前年對比 24.1%나 減少했다. 1971年과 1973年도 마찬가지로 消費者價格은 前年對比하여 各各 35.5%와 12.9% 增加했음에도 不拘하고 生産量은 各各 2.02%와 0.12%로 減少하여 豚肉의 經常消費價格은 豚肉生産에 正의 效果를 招來하고 있지 못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1975年과 1976年의 境遇에도 消費價格은 42.5%와 33.0%로 높게 增加했음에도 그 生産量은 各各 12.17%와 5.45%밖에 增加하지 않았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價格이 上昇하면 生産量이 增加하고 價格이 下落하면 生産量이 減少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의 價格展望이 좋으면 生産者들은 生産增大를 試圖한다는 定說에 相反되는 現象을 보이고 있어 生産에 대한 價格效果가 현저하지 못하였음을 立證하여 주고 있다.

鷄肉生産은 1965年을 基準으로 볼 때 그 生産

指數는 492인 반면 價格指數는 340으로 生産指數가 價格指數를 훨씬 上廻하였다.

1968年度에 鷄肉生産은 前年對比 40.6%가 增加하였으나 價格은 前年對比해서 7.5% 上昇하여 生産過剩現象을 보였고 1970年度는 生産量이 前年對比 7%로 大幅 減少함으로써 그 價格은 반대로 前年對比 23.8%나 急上昇하였다. 1973年度에는 生産量이 前年對比 다시 4.5%나 減少하였고 그 價格은 10.1%가 上昇하였다. 1977年의 境遇에도 生産量이 18.9% 增加함에 따라 그 價格은 7.1%의 낮은 增加를 보여 鈍化現象을 나타냈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 生産量이 增加하면 價格이 下落하고 生産量이 減少하면 價格이 上昇하는 正規的關係가 잘 反映되고 있다. 그러므로 鷄肉은 그 生産量에 價格의 影響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實情이다.

#### 4. 肉類價格과 肉類消費

肉類消費에 對한 肉類의 價格效果를 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肉類價格을 需要의 側面에서 보면 相反된 效果를 誘發한다. 즉 肉類價格의 變動은 實質所得水準에 影響을 미치는데 그 程度는 可處分所得 가운데 肉類購入에 지출되는 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所得의 많은 部分을 食料品購入에 지출해야 하는 低所得層에는 그 價格上昇이 小幅이라 할지라도 相對的으로 그들의 實質所得의 減少幅이 높기 때문에 價格變動에 민감한 反應을 보여 消費를 위한 需要量의 減少를 招來하게 된다. 물론 代替財의 有無와 反應度에 따라서 代替消費를 일으켜 實質所得의 減少幅은 적어질 수도 있다.

反面 高所得層은 家計費中 食料品費가 차지하는 比重이 적기 때문에 價格上昇에 따른 實質所

得은 적어지게 되어 價格變動에 민감한 反應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消費需要量은 不變 혹은 오히려 上昇을 誘發하게 되는 境遇도 있다. 특히 肉類는 都市의 中·高所得層에 의해서 消費需要가 形成되는 農產物 가운데도 高級食品에 속해 있기 때문에 以上에서 언급한 傾向이 우리나라 畜產의 境遇에도 例外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 肉類의 1人當 消費量과 實質價格 上昇關係를 分析하여 보면 價格上昇이 肉類消費需要에 相反된 現象을 나타내지 않고 實質價格이 上昇함에도 不拘하고 1人當 消費가 오히려 增加하는 正의 關係를 보이거나 變動을 보이지 않는 不變趨勢를 나타내고 있음을 <圖 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肉類價格이 相對的으로 저렴하거나 年次的인 上昇趨勢의 相對的인 鈍化때문으로 招來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肉類別로 보면 牛肉은 實質價格이 上昇함에 따라 1人當

圖 4 年度別 1人當 牛肉消費量과 牛肉實質價格과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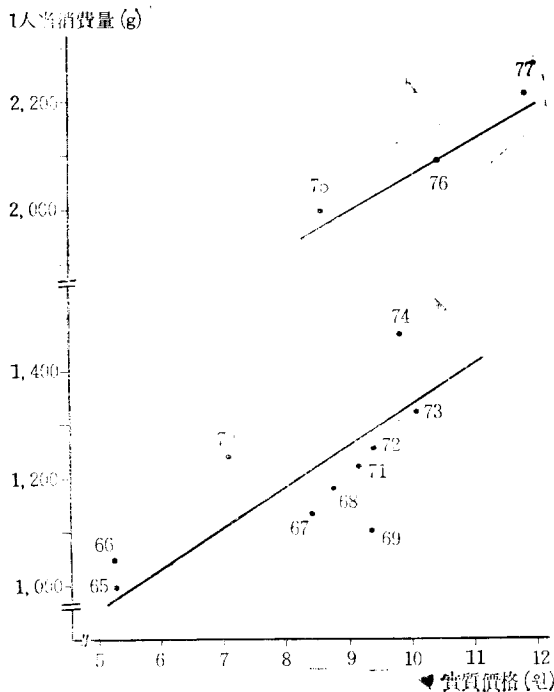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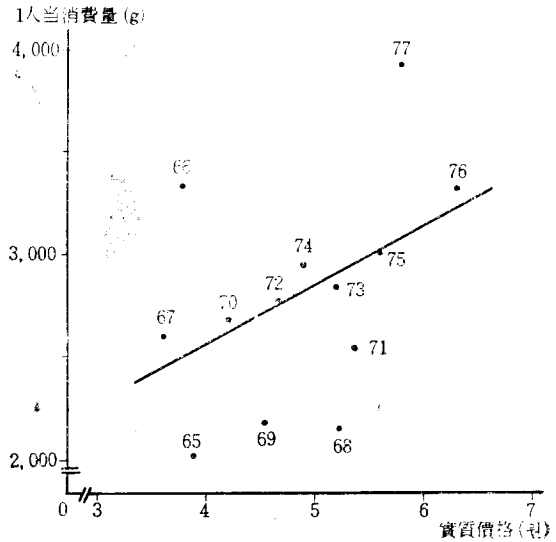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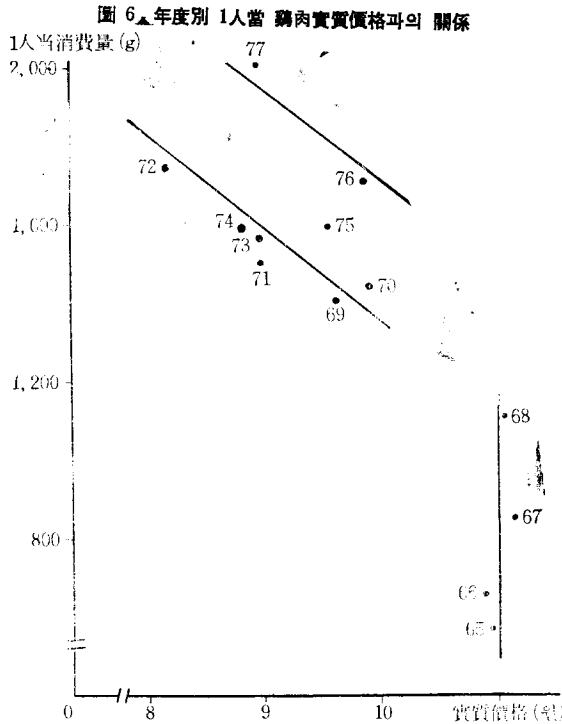


圖 5 年度別 1人當 豚肉消費量과 豚肉實質價格과의 關係



消費量은 年次的인 增加現象을 보이고 있다. 즉 <圖 4>에서 보면 1974년까지는 全般的으로 不規則的인 上昇傾向을 보였으나 國民所得水準이 500 달러를 上廻한 1975년부터는 年次的으로 右上向의 明白한 傾向을 보여 實質價格의 上昇은 消費抑制에 절대적인 機能을 發揮하고 있지 못함을 立證하고 있어 牛肉價格政策의 補完의 必要性이 절실하다. 또한 1975년부터 1977년까지의 3個年은 1974年 以前에 比하여 牛肉의 實質價格이 繼續 上昇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牛肉消費量이 急增하여 새로운 消費範疇를 成形成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豚肉의 境遇를 <圖 5>에서 보면 豚肉의 實質消費者價格의 變動에 따라 消費量도 함께 增加하는 現象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976年과 1977年 사이의 實質價格이 저렴하여 1977년에는 消費量이 急伸張하였다. 豚肉 역시도 實質價格과 消費量과의 사이에 先驗的 事例와 不一致하는 現象을 나타내고 있어서 牛肉價格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肉價政策의 方向摸索이 있어야 하겠다.



鷄肉은 <圖 6>에서와 같이 肉類 가운데 唯一하게 實證的 主張과 一致하는 實質價格과 消費量과의 關係를 보이고 있다. 1965, 1966, 1967, 1968 年の 4個年은 實質價格이 거의 不變인 상태에서 消費量이 急激하게 增加하였으나 1969년부터 1977년에 이르기까지 鷄肉의 實質價格이 繼續 下落하면서 鷄肉의 消費量도 繼續 上昇하여 先驗的 經驗과 同一한 結果를 나타냈다.

### Ⅲ. 肉類價格政策의 實踐方案

#### 1. 肉類價格政策의 目標

肉類價政策의 目標은 國民經濟의 個別的 與件에 따라 相異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市場機能을 통한 價格形成過程에서 招來되는 養畜家의 損失을 防止하고 나아가서는 所得을 增大시켜 他產業部問과 所得分配를 調節하고 價格機構를

利用하여 生産을 調節하고 物價水準을 安定시켜 消費者를 保護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肉類를 포함한 農畜產物價格政策의 境遇 先進國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農業所得을 安定시켜서 他產業部問과의 所得隔差를 解消시키자는 것이 일반적인 現象이고 後進國에서는 增産 및 國民經濟의 安定을 目標로 하고 있으나 事實上 明確한 區別은 어렵고 最近에는 여러 나라에서 모두 所得增大, 生産調整, 物價安定, 消費者保護 및 政府財政安定 등의 多目的의 下에 農產物價格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政策目標達成에는 그 實施過程에서 서로 相反되는 手段을 使用해야 하며 政策目標相互間에도 同時에 成就할 수 없는 境遇가 많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養畜農家의 所得增大를 위해서는 肉類價格을 高水準에 維持해야 하나 物價安定을 위해서는 可及的 低廉한 水準으로 維持해야 하는 形便을 意味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生産農民의 所得增大, 增産, 物價安定, 消費者保護 및 政府財政安定을 同時에 成就하려는 境遇에 있어서는 肉類의 最適價格政策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니다.

#### 2. 肉類價格政策으로서의 備蓄事業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肉類價格의 相對的 低廉, 國民所得增大에 의한 肉類需要의 急伸張, 慢性的인 供給不足으로 惹起된 肉類波動에 대한 對處와 物價安定을 圖謀하기 위하여 牛肉輸入을 통한 供給調節政策을 實施하고 있다. 그리고 牛肉輸入에 의한 備蓄은 每年 高潮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比較生産費說에 立却한 牛肉輸入의 完全開放은 國內畜産保護와 長期的인 物價展望의 觀點에서도 止揚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輸入에 의한 肉類價格抑制政策은 肉類生産을 감소하고 牛肉消費增加로 國內畜産의 安定的인 成

長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輸入增大에 의한 外貨낭비가 永續化할 可能性이 높다. 이는 1976年에 枝肉 t當 370달러(FOB 價格)하던 것이 1978年初에는 527달러로 上昇했고 1978年末에는 1,250달러로 올랐으며 最近에는 1,490달러로 上昇하여 1976年 對比 300%가 上昇하였음이 立證해 준다.

더우기 肉類의 國際需要가 繼續的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牛肉輸入이 長期的으로 순조롭지 않을 展望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肉類價格政策의 一環으로 肉類備蓄事業을 통한 需給安定을 위해서는 充分한 備蓄施設의 確保가 先行되어야 하며 肉類生産費 및 價格調査가 철저하게 수행되어 生産者와 消費者가 同時에 만족할 수 있는 適切한 價格振幅內에서 備蓄과 放出이 安定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肉類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한 備蓄은 國內 市況과 肉類自給度向上이라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 하면 現在와 같이 肉類價格이 相對的으로 저렴한 狀態下에서는 適正한 放出價格과 事業規模가 策定되지 못하면 需給調節을 통한 價格安定을 기하기 以前에 오히려 消費者에게 備蓄畜産物의 消費를 助長하여 消費偏重을 深化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肉類放出價格의 現實化와 國內 肉類自給을 前提로 한 適正輸入量 推定을 통한 最適事業規模를 策定하여 事業을 繼續함이 備蓄事業의 目的에 符合되는 것이다.

### 3. 肉類의 適正價格과 支持價格

畜産物價格의 適正水準維持는 國民經濟 全般의 安定을 위하여 必須條件이라는 것은 누차 強調되어 왔다. 그러나 어떠한 價格水準이 適正이냐 하는 問題는 그때 그때의 經濟事情과 政策目

標의 優先順位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認識되어 왔다. 왜냐 하면 畜産物價格政策을 통하여 어떤 政策目的을 達成하려면 다른 目的을 犧牲하지 않으면 안되는 境遇도 있고 또 어떤 政策目標는 그것을 達成하면 다른 政策目標는 同時에 達成되는 境遇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肉類價格은 自由市場의 前提下에 形成되게 하여 肉類價格政策에 일대 方向轉換을 일으켜야 함은 물론, 높은 支持價格 등과 같은 價格要因을 통해서 生産構造의 改善, 生産經營의 安定 등과 같은 畜産經營體質을 改善케 함으로써 國內 肉類生産增進을 꾀하는 한편 農家所得을 向上시킬 수 있는 政府의 政策的 努力이 매우 時急하다.

한편 肉類 協定價格의 撤廢가 반드시 肉類價格의 高水準으로의 轉換을 意味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畜産物間의 代替가 이루어져 均衡的 需要構造가 形成됨으로써 安定的인 畜産發展에 貢獻할 수 있을 것이고 所得決定과 價格形成의 供給則 要因인 生産性的 提高로 對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한 生産部門에서 技術水準이 向上하고 同時에 資本集約化와 더불어 大量生産樣式이 採擇된다면 이는 곧 單位生産增大를 招來할 것이며, 그 結果 單位生産費가 하락하고, 따라서 競爭的 市場構造를 前提로 한다면 生産物價格도 相對的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政府는 現行的 非現實的인 肉類價格統制보다는 自由市場을 前提로 한 높은 支持價格制度를 採擇하고 過剩生産과 過小生産에 의한 價格의 폭락과 폭등은 앞에서 논한 備蓄事業 등과 같은 供給調節政策을 통하여 賣買操作을 함으로써 肉類價格이 適正線을 維持케 하여 市場價格을 安定시키고 再生産의 確保와 消費의 安



定을 圖謀해야 한다.

肉類價格支持는 生産價格(生産費 + 適正利潤)의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價格支持政策下에서는 가끔 支持價格水準이 높아 消費家計에 支出負擔을 주며 인플레이션의 原因이 되기도 하며 또한 生産에 刺戟을 주어 過剩生産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現在の 需給事情으로 보아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설사 可能性이 높다 하더라도 二重價格制度 등의 導入으로 이에 對處할 수 있을 것이다.

#### IV. 結 論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實施되어 온 經濟開發計劃의 成功的 推進으로 國民所得의 劃期的인 成長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農業政策이 穀物中心의 食糧自給이란 大前提下에서 遂行되었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畜産業에 대한 미흡한 政策的 配慮와 未備한 制度로 말미암아 最近 生産供給이 需要를 따르지 못하는 不均衡成長을 誘發시켰다.

더우기 數次에 걸친 畜産振興計劃과 이의 修正・補完에도 不拘하고 安定的 生産基盤이 造成되지 않은 채 畜産物需要의 急速한 增加로 肉類의 價格波動을 招來하여 급기야는 牛肉과 豚肉의 輸入을 통한 現實的 對策을 講究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現在 肉類價格構造의 特徵으로 되어 있는 肉類價格의 深化된 不安定性, 現行 消費者價格의 肉類生産增進을 위한 인센티브 缺如 및 肉類消費抑制을 誘發하지 못하는 肉類價格의 相對的 低廉 등을 根源的으로 解消할 수 있는 肉類價格政策의 立案 없이는 生産安定과 持續的인 增産을 통한 肉類需給 및 價格安定을

이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先進外國과 같이 肉類의 食糧化 및 自給化를 肉類價格政策의 目標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肉類의 低物價政策은 畜産物消費의 偏重化를 招來하며 生産基盤을 弱화시키는 原因이 되므로 이를 止揚해야 하며 政府는 非現實的인 肉類價格統制보다는 肉類 全般에 自由市場을 前提로 한 높은 支持價格制度를 採擇하고 同時에 備蓄事業 등과 같은 供給調節政策을 並行함으로써 肉類價格이 適正線을 維持하도록 誘導하고 肉類市場價格을 安定시켜 再生産의 確保와 消費의 安定을 이룩해야 한다.

供給調節을 위한 備蓄事業은 國內 市況과 肉類自給度向上이라는 大前提下에서 遂行되어야 하므로 正確한 適正輸入量이 推定되어 最適規模로 持續되어야 한다. 適正量 以上の 外國産 肉類의 擴大輸入은 國內價格을 抑制하며 消費의 對外依存을 深化시킬 뿐만 아니라 外貨負擔을 높여 有事時에는 食糧資源의 自由로운 貿易이 自國民의 食糧確保라는 國益優先原則으로 持續될 수 없기 때문이다.

肉類支持價格은 그 生産費에 社會的인 平均利潤까지 加算하여 策定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增産을 刺戟하고 養畜農家の 所得向上을 圖謀할 수 있다. 이는 期待的 供給安定을 위해서도 絶실히 必要하다.

#### <參考文獻>

1. 金成勳, "外國産 쇠고기 導入은 옳은가", 月刊綜合畜産, 1977. 6.
2. 農水産部, 畜産振興長期計劃: 1978~1991, 1978. 8.
3. \_\_\_\_\_, 畜産需要 및 價格資料, 1978.
4. \_\_\_\_\_, 農政手帖, 1977, 1978.
5. \_\_\_\_\_, 農林統計年報, 1966~1977.
6. 文八龍, 農産物價格分析論, KDI, 1976, pp. 213~214.
7. 綜合畜産, "畜産物需要 및 價格對策", <月刊綜合畜産>, 1979, 2.
8. 成培永, "肉類의 需給 價格 流通", <農村經濟>, Vol. 1, No. 3, 1978, 12.